

주간 통일정세

2017-4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16	北, 美 압박강화에 '반미교양' 강조...내부동요 차단(연합뉴스)
	10.18	北, 中 당대회에 축전...“성과 거두길 축원”(연합뉴스)
	10.19	北 김정은, 설비 현대화한 운동화 공장 시찰...김여정 수행(연합뉴스)
군사	10.19	北 단체, 한미해상훈련 등 비난...“상상밖 타격 직면 각오해야”(연합뉴스)
경제	10.15	北, '제재극복' 자력갱생 위한 주민 분발 독려(연합뉴스)
	10.17	北, 제재 속 연일 '인민경제계획 완수' 부각(연합뉴스)
사회	-	-
문화	-	-
외교	10.14	北 외무성, 호주 비난...“美 압박 추종 시 화 면치 못할 것”(연합뉴스)
국방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0.19	류원신발공장 공개활동	안정수,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박명순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0. 19.

■ 北 김정은, 설비 현대화한 운동화 공장 시찰…김여정 수행(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설비 현대화공사를 마친 운동화 공장을 방문해 질 좋은 제품의 생산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신발공업 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공장을 각종 운동신발과 종목별 전문 체육 신발들을 연간 백수십 만 켤레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 기지로 전변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통신은 밝힘.
- 김 위원장은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제화 흐름선을 비롯하여 87종에 1천 600여 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국산화 비중을 87% 이상으로 보장하였는데 대단하다”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0. 18.

■ 北, 中 당대회에 축전…“성과 거두길 축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8일 개막하는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 대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노동당 중앙위는 이날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노동당 중앙위는 “중국 인민은 지난 기간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힘.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0. 16.

■ 北, 美 압박강화에 ‘반미교양’ 강조…내부동요 차단(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미교양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반미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가 걸어온 (핵·경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정당한 길이이며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게 하여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교양사업의 내용을 제시함.
- 특히 신문은 “오늘 우리 혁명대오에는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체험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했다”며 “새 세대들 속에서 반미 계급의식이 마비되면 혁명이 중도반단(중단)되고 나중에는 온 민족이 미제의 노예가 되게 된다”고 위기감을 끌어올림.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2017. 10. 19.

■ 北 단체, 한미해상훈련 등 비난…“상상밖 타격 직면 각오해야”(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가 한미 해군의 연합 해상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및 첨단무기의 한국 전개 등을 비난하면서 ‘예상 밖의 시각에 상상 밖의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함.
- 이 단체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서울 국제항공우주

-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의 B-1B 전략폭격기·F-22·F-35A 스텔스 전투기 참가, 2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이 단체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늑다리 미치광이의 망언이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자위적 행동이 임의의 시각에 단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10. 15.

- 北, ‘제재극복’ 자력갱생 위한 주민 분발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강조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민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1면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제목으로 채취기계공업국 등 최근 성과를 낸 경제 단위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 입장과 혁명적 대응 전략이 밝혀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 나갈 온 나라 인민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2017. 10. 17.

- 北, 제재 속 연일 ‘인민경제계획 완수’ 부각(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 높이 생산 돌격전을 힘차게 벌여 10월 8일까지 공기압축기와 감속기, 공작기계, 각종 프레스 등 맡겨진 지표별로 연간 계획을 100.3%로

빛나게 수행했다”고 보도함.

- 이 밖에도 각종 북한 매체가 여러 북한의 기업소와 공장의 연간 계획 초과 완수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 매체들이 앞다퉀 연간 계획을 조기에 달성한 공장들을 띄우는 것은 다른 지역과 공장의 생산 의욕을 자극해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경제성과를 내리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성과를 부각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제재의 무용론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0. 14.

- **北 외무성, 호주 비난…“美 압박 추종 시 화 면치 못할 것”(연합뉴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공식 인물들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지지해 나서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동을 해대고 있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트럼프의 이기적인 ‘미국 제일주의’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함.
 - 대변인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의 판문점 방문 및 북한 규탄 발언 등을 거론하며 “오스트레일리아가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경제·외교적 압박 책동에 계속 추종하다가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외무성 대변인은 또 호주 주둔 미군과 호주군이 지난 4월부터 북한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영토를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자기 무력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모는 것은 지난 조선전쟁(6·25전쟁)의 비참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자살행위”라고 강조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15	김동연, 美재무장관과 양자회담 “환율 조작 없다” 강조(연합뉴스)	
			틸러슨 “트럼프,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여줄 방한일정에 큰 관심” (연합뉴스)
	10.16		백악관 “트럼프, 내달 7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연합뉴스)
		한미, 미 항모 레이건호 참가 고강도 연합훈련(자유아시아방송)	
	10.17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北문제 대처 외교적 노력 집중”(연합뉴스)
	10.18	한미, 차관급전략대화 개최...“폭넓고 다양한 관심사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차관협의...“대북압박속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긴요”(연합뉴스)	
		강경화, ‘9개월 공식’ 주한美대사 조속 결정 희망 전달(연합뉴스)	
		이도훈 6지수석 “평화적 상황 관리, 한미일 공통입장”(연합뉴스)	
	10.20	한미 6지수석 회동...“양국 긴밀공조 바탕 중·러 견인 노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16		中, 한미 동서해 연합훈련에 반발...“유관 각국 자제 유지해야” (연합뉴스)
	10.19	외교부 “中 당대회 관련 동향 주시...성공개최 기원”(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17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우려...성찰·반성 보여야”(연합뉴스)	
	10.18	강경화 “한미일 긴밀한 북핵 협력, 성공 해결의 큰 관건”(연합뉴스)	
		日외교차관 “한국에 ‘위안부합의 이행 지극히 중요’ 입장 전달”(연합뉴스)	
	10.19	한일 6자수석 회동...“北도발 지속억제·상황안정관리 협의”(연합뉴스)	
	10.20		日외무성, 韓 독도방어부대 창설추진에 “매우 유감” 항의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0.19	한국, 6자회담 차석대표 러 비확산회의 파견(자유아시아방송)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14		中-러 “美의 MD체계 군비경쟁 촉발”...“사드 철수하라”(연합뉴스)
			中, 美 이란핵합의 ‘불인정’ 비난...“북핵해결 더 어렵게 할 것”(연합뉴스)
	10.16		中, 미국산 의약품 원료 반덤핑 조사...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연합뉴스)
	10.17		中 “트럼프 美대통령 11월 8~10일 방중...미중 정상회담 예정”(연합뉴스)
	10.18	中 환율조작국 또 피했다...‘빈말’로 남은 트럼프의 호인장담(연합뉴스)	
	10.19	틸러슨 “美·동맹국에 불이익시 中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연합뉴스)	
			中, “중국도전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美국무에 “편견버려라” 응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0.17		美 압력 동했다...日, 미국車 수입질차 간소화 요구 수용(연합뉴스)
		美, 日에 FTA 협상 요구...“펜스 부통령, 강한 관심 표명”(연합뉴스)	
			日정부 “트럼프 대통령 11월 5~7일 日방문...미일 정상회담 예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0. 15.

■ 김동연, 美재무장관과 양자회담 “환을 조작 없다” 강조(연합뉴스)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 공조, 환율 보고서, 한미 FTA 개정협상 등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두 사람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리스크에 한미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빈틈없는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함.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겨 두고 있으며 조작은 하지 않기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함.

■ 틸러슨 “트럼프,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여줄 방한일정에 큰 관심”(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밤 전화 협의를 갖고 수주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힘.
- 틸러슨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역내 동맹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 대응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남은 기간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두 장관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율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함.

2017. 10. 16.

■ **백악관 “트럼프, 내달 7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함.
-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고 하와이도 방문한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백악관은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 간 영구적인 동맹과 우정을 기념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 미 항모 레이건호 참가 고강도 연합훈련(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가 16일부터 닷새간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함.
-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힘.
- 동해에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 시설 타격 훈련이 진행되며, 서해에선 북한 특수작전군 침투를 저지하는 연습 위주로 진행됨.

2017. 10. 17.

■ **미국무부 장관 방한…“北문제 대처 외교적 노력 집중”(연합뉴스)**

-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방한하여 “우리가 직면한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힘.
- 설리번 장관은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 이번 방한 기간에 진행되는 회의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북한 등 많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일본 및 한국 측과 만나 토론할 것”이라고 답변함.
- 한편, 설리번 장관에 앞서 이날 입국한 스기야마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를 묻자 “주요한 의제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와 함께 관련된 여러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한미일의 연대를 중요성을 확인하는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10. 18.

■ **한미, 차관급전략대화 개최…“폭넓고 다양한 관심사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8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북핵 대응 등 현안을 협의함.
-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11월 7~8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임.
- 이날 회의에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과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이 배석함.

■ **한미일 차관협의…“대북압박속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긴요”(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함.
- 임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완전한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확인하며 3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기야마 차관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한국, 미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며, 또한 앞으로 그 협조를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언함.

■ **강경화, ‘9개월 공식’ 주한美대사 조속 결정 희망 전달(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 공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의 조기 파견을 당부함.

- 강 장관은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위해 방한한 설리번 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의 노고를 치하한 뒤 “우리는 정말로 새 대사가 그 자리(대사직)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미국) 국내 절차를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매우 빨리 결론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상무부와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설리번 부장관은 이에 대해 “나도 그 절차(임명까지의 절차)를 세차례 거쳤는데, 매번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함.

■ 이도훈 6자수석 “평화적 상황 관리, 한미일 공통입장”(연합뉴스)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일 6자수석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말하는) 대북 ‘모든 옵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평화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관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한미일 모두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함.
- 이 본부장은 이어 “오늘 차관급 협의가 있었고 이어 6자수석 회의를 한 것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지를 보여준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함께 잘 관리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함.
-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차관급에서 좋은 대화를 했고 향후 있을 고위급 회동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북한이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 된 상황에 우리가 모인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데 방문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협의는 매우 적절하다”고 발언함.

2017. 10. 20.

■ 한미 6자수석 회동…“양국 긴밀공조 바탕 중립 견인 노력”(연합뉴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오전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함.
- 외교부는 협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동향 및 의도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포함한 외교적

-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전함.
- 외교부는 이어 “양국 수석대표들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주요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나. 한·중 관계

2017. 10. 16.

■ 中, 한미 동서해 연합훈련에 반발…“유관 각국 자제 유지해야”(연합뉴스)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해군의 동서해 연합훈련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유관 각국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함.
- 루 대변인은 “이런 긴장상태는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특히 지역 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중국은 유관 각국이 현재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함.

2017. 10. 19.

■ 외교부 “中 당대회 관련 동향 주시…성공개최 기원”(연합뉴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뒤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임.
- 노 대변인은 노영민 주중대사,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 등이 각각 부임 전 연내 한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한중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임명을 받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언론과 소통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답변함.

다. 한·일 관계

2017. 10. 17.

■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우려…성찰·반성 보여야”(연합뉴스)

- 외교부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물 봉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과거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2017. 10. 18.

■ 강경화 “한미일 긴밀한 북핵 협력, 성공 해결의 큰 관건”(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일간 북핵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성공 해결의 하나의 큰 관건”이라고 발언함.
-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3국 차관 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장관, 정상 레벨에서 긴밀히 더욱 공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스기야마 차관도 모두발언에서 “(강) 장관님이 고노 대신(외무상)과 세 차례 직접 얘기하신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두 번에 걸쳐 만났다”며 “이렇게 고위급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외교 당국 책임자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함.

■ 日외교차관 “한국에 ‘위안부합의 이행 지극히 중요’ 입장 전달”(연합뉴스)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3국 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 내용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밝힘.

- 스기야마 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한일 간의 양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며 “그 협의 가운데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자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언함.
- 임 차관은 같은 질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TF를 설치해 제반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드렸고, 또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청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함.

2017. 10. 19.

■ **한일 6자수석 회동…“北도발 지속억제·상황안정관리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19일 서울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으며, 가나스기 국장은 “북한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 됐다”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

2017. 10. 20.

■ **日외무성, 韓독도방어부대 창설추진에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 해병대가 ‘독도방어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한 외교채널로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우리나라 입장에 비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함.
- 앞서 해병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륙전력 증강에 따른 선제적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북도서 방어 위주에서 주변국

위협을 동시에 대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순환식으로 운용 중인 울릉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라. 한·러 관계

2017. 10. 19.

■ 한국, 6자회담 차석대표 러 비확산회의 파견(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정부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 비확산회의에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파견함.
-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CENESS)가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반관반민 협의체로,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이란 핵 협정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외교부는 또 방러 기간 동안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북핵 담당 특임대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0. 14.

■ 中-러 “美의 MD체계 군비경쟁 촉발”...“사드 철수하라”(연합뉴스)

- 14일 중국 관영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 대표는 현지시간 12일 오후 유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주변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격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철수를 거듭 요구함.
- 중국측 대표인 저우상평(周尙平)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은 MD는 세계의 전략균형과 평화, 안정, 군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MD 체계 구축은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희생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의 국방부 대표인 알렉산드르 에멜랴노프도 미국이 한편으로 러시아와 함께 핵 역량을 감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MD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글로벌 전략안정의 기초를 훼손했다고 비난함.

■ 中, 美 이란핵합의 ‘불인정’ 비난…“북핵해결 더 어렵게 할 것”(연합뉴스)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이행 ‘불인정’을 선언한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사평에서 이란 핵협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보기라면서 이란 핵합의는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관련국이 합의에 도달했고 다자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를 제시했는데 역사적으로 공헌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런 이란 핵합의가 와해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정치적 어려움은 도를 더할 것이며 북한은 더이상 상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0. 16.

■ 中, 미국산 의약품 원료 반덤핑 조사…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일본산 의약, 화학용품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발표함.
-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부터 미국,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1년 기간으로 실시하며 조사가 2019년 4월 16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힘.
- 상무부는 미국, 일본산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자국내 요오드화수소산 업계가 충격을 받았다는 업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2017. 10. 17.

■ 中 “트럼프 美대통령 11월 8~10일 방중…미중 정상회담 예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CCTV가 보도함.
- 방송은 미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3일부터 14일 일본·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에는 8일부터 10일 까지 머물게 된다고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련의 비즈니스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2017. 10. 18.

■ **中 환율조작국 또 피했다..‘빈말’로 남은 트럼프의 호언장담(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함.
- 이외에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 곳도 없음.
-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 강화, 기준환율 설정의 재량 확대 등으로 무질서한 위안화 절하를 막았다고 평가함.

2017. 10. 19.

■ **틸러슨 “美·동맹국에 불이익시 中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음 세기 인도와의 관계 정립’ 세미나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제휴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때때로 세계 안정 유지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인도 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인도와 중국 모두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인도에 대해선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잘 준수해 왔다고 추켜세운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를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함.
- 또한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추구한다”면서도 “중국이 이웃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불이익을 가한다면 중국의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中, “중국도전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美국무에 “편견버려라” 응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중국의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응수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에 중점을 두고 이견을 잘 처리하면서 미·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발휘한 역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고도 발언함.

나. 미·일 관계

2017. 10. 17.

■ 美 입력 통했나…日, 미국車 수입절차 간소화 요구 수용(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수입절차 간소화 요구를 수용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양국이 전날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번째 ‘경제대화’에서 일본이 소음·배출가스 환경시험과 관련해 미국 측을 배려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회의 뒤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일본이 지난 8월 발동한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재검토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가까운 시기에 양국간 무역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한다”고 명기됨.

■ 美, 日에 FTA 협상 요구…“펜스 부통령, 강한 관심 표명”(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전날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번째 ‘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이 FTA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보도함.
-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FTA 협상과 관련, 일본은 농축산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어 신중한 자세라며 “바로 협상 개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보도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일 시 정상회담에서 FTA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함.

■ 日정부 “트럼프 대통령 11월 5~7일 日방문…미일 정상회담 예정”(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다음달 5~7일 2박 3일간 이라고 밝힘.

-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부 부(副)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멜라니아)이 (11월) 5~7일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과제를 논의해 미일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발언함.
- 그는 “체재 중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한편 아베 총리와 함께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면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0.18	몽골 북 노동자 임금 체납에 귀국도 못해(자유아시아방송)
	10.19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155만t 수확할 것”…내년 8만t 수입 전망(미국의소리)
		EU “북한, 모든 인권 분야에서 구조적 결함”(미국의소리) 유엔여성차별철폐위, 내달 ‘북 여성인권’ 이행 심의(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10.17	북, 식량사정 악화 전망…도·농 영양격차 세계최악(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0.15	올해 입국한 탈북민 881명…작년 동기 15% 감소(연합뉴스)
	10.19	탈북민 합동신문 기간 최대 180일→90일로 축소(연합뉴스)
대북지원		특이사항 없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0. 18.

■ 몽골 북 노동자 임금 체납에 귀국도 못해(자유아시아방송)

-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인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체류기한에 발목이 잡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 기업인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현지 소식통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몽골의 경제상황이 최근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몽골 주요 지역에서 진행되던 건설사업들이 경기 침체로 중단되면서 하청 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납이란 불똥이 튼 것임.

2017. 10. 19.

■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155만t 수확할 것”...내년 8만t 수입 전망(미국의소리)

- 미 농무부는 북한의 올 가을 쌀 생산량을 155만t으로 내다봄.
- 미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가 16일 발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 (Rice Outlook: October 2017)’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 전달 발표한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은 160만t으로 잡았던 쌀 생산 전망치를 5만t 낮춘 것임.
- 무엇보다 올해 봄 날씨가 매우 건조해 농작물이 다소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음.
- 미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의 다스 미타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농작물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쌀 수확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밝힘.
- 미 농무부는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음.

■ EU “북한, 모든 인권 분야에서 구조적 결함”(미국의소리)

-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북한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에서 여전히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밝힘.
- 유럽연합은 최근 발표한 ‘2016 민주주의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의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평가를 상기시킴.
- 또 북한인권 상황은 지난 해 유럽연합이 일본과 공동 발의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다시 거론됐으며, 두 결의안 모두 북한의 구조적 결함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 하지만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통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유엔여성차별철폐위, 내달 ‘북 여성인권’ 이행 심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을 예정임. 오는 23일 개막되는 스위스 제네바의 제 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가 협약 가입국 북한의 이행 여부를 심의함.
- 23명의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달 8일 북한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전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바탕으로 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임.
- 북한이 지난해 4월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앞선 사전실무그룹 (CEDAW 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 쟁점목록을 바탕으로 제2차부터 제4차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됨.
- 협약 비준국은 적어도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협약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함.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 보고서를 제출해 2005년 33차 위원회에서 처음 평가를 받았고, 다음달에야 다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0. 17.

■북, 식량사정 악화 전망...도·농 영양격차 세계최악(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심각한 가뭄으로 지난해보다 식량상황이 나쁠 것으로 전망했고 식량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보고서는 도시와 시골의 식량수급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외부세계 식량문제 전문단체들은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지난해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함.
-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식량안보·농업 부문 세계 조기 경보-조기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올가을 추수하는 주요 작물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기구가 지난 9월 공개한 ‘작황 전망보고서’에도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비가 적게 내려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지역 농사가 흉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0. 15

■올해 입국한 탈북민 881명...작년 동기 15% 감소(연합뉴스)

- 올해 1~9월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어듦.
-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81명으로 작년 동기 1천36명보다 14.9% 감소함. 이 중 남성은 153명, 여성은 728명으로 여성 비율이 82%를 차지함.
-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입국 탈북민 규모는 크게 감소해 매년 1천200명에서 1천500명 수준을 유지해옴.
- 2011년 2천706명이었던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 1천275명까지 줄어들어옴. 2016년 1천41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체제하의 통제 강화 때문으로 분석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2017. 10. 19.

■ **탈북민 합동신문 기간 최대 180일→90일로 축소(연합뉴스)**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됨.
-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합동신문 기간이 ‘18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도 조사가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 기간을 축소해 인권침해 우려도 줄이고 탈북민이 가급적 빨리 정착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함.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